

1930 양림쌀롱, 콘서트·홀리마켓·달빛투어 유·스퀘어 음악회, 해설이 있는 비보이 공연

문화가 있는 날

내일 다채로운 프로그램

광주극장 ‘필름 정거장’

‘청춘 마이크’ 15개팀 56명

광주·해남·목포 등서 공연



광주양림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930 양림쌀롱’의 쌀롱콘서트 모습.

28일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공연, 전시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문화행사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양림쌀롱 1930’에서는 카페 양림, 동계비 등 여러 카페들과 문화공간들이 참여해 마음껏 커피데이, 쌀롱콘서트, 특별강연, 마켓, 디제잉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꾸린다.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쌀롱콘서트’에는 ‘센치한 버스’, ‘풍각듀오’, ‘가로등 뮤직’ 등이 참여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엔터 소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양림홀리마켓’도 열린다.

또 이번달에는 양림동을 야간에 둘러볼 수 있는 야간투어프로그램 ‘양림달빛투어’를 진행되며 근대 의상, 소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모던의상대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1930 양림쌀롱’에는 양림동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다. 양림오거리에서 열리는 야외마켓 행사에 약 30여명의 양림동 주민들이 먹거리, 공예품 등을 준비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지난 달 행사에서도 주민 셀러들은 떡과 전, 음료 등 맛있고 간편한 먹거리와 마을 상품을 판매, ‘완판기록’을 세웠다. 문의 070-4239-5040.

영화를 즐기는 영화로운 시네마천국 ‘필름정거장’의 6월 행사 주제는 ‘THE 유월, 다시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광주극장과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필름정거장에 찾아온 한사람, 한사람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미디어 아카이브 프로젝트 ‘만인보 프로젝트’, 내 손으로 직접 기념엽서를 제작해보는 ‘핸드메이드 필름정거장 엽서’, 기억의 비디오 전시 및 보물 찾기가 진행되는 ‘비디오 보물섬’, 추억의 비디오 상영관 ‘필름영화방’ 등이 시민들



유·스퀘어 야외 광장에서 공연하는 비보이 그룹 ‘갬블러 크루’

을 기다리고 있다. 또광주극장 관계자가 필름정거장 역장이 돼 극장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역장투어’가 두차례 운영된다.

그밖에 7080 음악다방 컨셉의 휴식카페 ‘라 비앙 로즈’와 다방 DJ프로그램 ‘영화가 빛나는 밤에’, ‘뮤직시네마 천국’이 진행된다. ‘오늘의 영화’는 아이들과 가족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기쿠지로의 여름’(1999년)이다.

필름정거장(www.facebook.com/A-filmstation) 문의 062-366-1895.

유·스퀘어는 오후 6시15분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2002년 창단 후 ‘독일 배틀 오드 더 이어’에서 2004년과 2009년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 전문 예술단체 ‘갬블러 크루’가 함께한다. 해설이 있는 비보이 무대와, DJ 공연, 시민 참여형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공연 시간 동안 응모함에 담긴 명함을

추첨, 동산아트홀과 금호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작품의 초대권을 증정하는 명함이벤트도 실시한다. 문의 062-360-8431.

광주문화재단은 낮12시 1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야외광장에서 6월 문화가 있는 날 ‘시민극장’으로 ‘한 낮의 국악 한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퓨전국악실내악단 ‘예다’를 초청, ‘쑈대머리’, ‘난갑하네’, ‘전향’ 등 국악가요를 들려주며 공연 30분 전부터 관객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 무료공연, 문의 062-670-7943.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후 4시 생황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미술관’을 진행한다. 전시 ‘FACT OR NOT-양철민’전을 관람하고 어울리는 작품을 제작하여 미술관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자리로 흑백사진 포토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문의 061-381-0082.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마이크’ 공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연팀이 광주·목포·해남 등 곳곳을 찾아가다. 6월 공연에는 국악그룹 ‘여음’ 등 15개팀 56명이 참여한다.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는 낮 12시부터 남도민요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여음’, 재즈·힙합·R&B 등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Viscosity’, 마술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깨비매직’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오후 6시30분부터 퓨전연극그룹 ‘짧은태양’이 뮤지컬라마 ‘결혼’을 무대에 올리고,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와 이진우는 각각 어쿠스틱 음악을 들려준다. 문의 061-280-5829.

광주시립미술관은 오후 5시부터 ‘이상호, 전정호 작가가 그림을 통해 들려주는 6월 항쟁 이야기’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위에도 참여했던 경험 등을 작품 설명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응답하라 1987’전은 7월30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613-71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무등현대미술관 30일까지

복원·모사 전통회화 전시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옛것을 따라하며 새것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30일까지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다’를 연다.

그동안 현대미술작품을 주로 전시했던 무등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전통화를 선보인다.

전시에는 조선대 한국화가 학생들이 참여한다. 수업의 하나로 회화문화재 복원을 공부한 학생들은 옛 그림을 복원하고 모사함으로써 한국 전통회화 아름다움과 중요성, 보존 필요성 등을 상기시킨다.

전시에는 강민우 작가를 비롯해 4학년 학생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동물’을 소재로 삼아 호랑이, 독수리, 까치 등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다. 이암, 김득신, 김홍도, 변상벽, 신윤복, 안중식, 이방운, 이암, 윤두서, 조지운, 홍세섭 등의 작품을 복원·모사해 선보인다.

캔, 페트병 등 재활용품으로 옛 그림 속 동물을 만들어보는 정크아트 체험프



윤소정 작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임방울국악진흥회 공연...29일 나주 한전 공연장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나주 한전 공연장에서 흥겨운 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공연예술행사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국악의 히로애락’ 프로그램으로 한전 직원과 가족, 나주 시민들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다. 29일 오후 7시 한전 한빛홀.

첫 번째 무대는 신명나는 풍물판굿으로 임방울국악제 농악 우수상팀 ‘우도농악단양보존회’(장호준 외 8명)가 출연하며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 김한미 명창이 국장 임방울의 애창곡 ‘쑈대머리’와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을 들려준다.

또 특별출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강정숙 명창의 가야금병창이 이어지며 여

대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정의진, 김향순, 마미숙, 노해현 명창이 남도민요의 백미인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선사한다.

그밖에 기악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자 김승호 등 4명이 함께 들려주는 ‘아리랑연곡’ 연주, 김덕속 명인이 함께하는 ‘승무’, 이승연의 아코디언 연주가 펼쳐지며 특별출연으로 조상현 명창이 단가 ‘사월가’와 판소리 ‘심청가’ 중 한 대목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신 뱃노래’, ‘내 고향 좋은시고’, ‘진도아리랑’이 장식한다. 사회는 KBS 개그맨 장기영이 맡는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jncbms.co.kr

사건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의 역사와 숨쉬는 공간

박성천 지음

사건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내일의 시간을 가늠하는 기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을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한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여 있기도 했다.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사건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내일의 시간을 가늠하는 기회이다.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윌컬러 | 제이앤씨 출판사